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5.6. ~ 5.12.)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민 14 - 21	시 50 - 61
	개인	사 3 - 10	히 11 - 약 4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4) - 오직 그리스도(5)		
	<p>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p>		



히브리서 11장 / 믿음의 사람들**개요**

1-7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심

8-40 현실 속의 믿음

참된 믿음은 실제입니다(1,2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3절).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4-7절).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온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8-12절).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13-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그 부모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17-26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으며,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27-29절). 그외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31-38절).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39-40절).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예비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었으며, 그로 인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 성도들은 거기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더욱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현실을 이겨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5월 7일(화)

민15

시51

사5

히12

히브리서 12장 / 하나님을 바라보라

개요

1-3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4-29 아버지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얻은 믿음의 본이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1-3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현실에서는 죄와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권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4-9절).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10-13절).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14-17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신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18-29절).

믿음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싸움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믿음으로 돌이켜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으로 알게 하옵소서.

5월 8일(수)

민16

시52-54

사6

히13

히브리서 13장 / 믿음의 현실

개요

1-17 사랑의 권면

18-19 기도 요청

20-25 끝 인사

믿음으로 사는 삶은 현실도피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웃 사랑이며(1-3절), 진실한 부부 관계이며(4절),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며(5,6절),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과 행실이며(7,8절), 참된 제사이며(9-15절), 선행과 나눔이며(16절), 순종입니다(17절).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18,19절).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20-25절).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의 목록을 보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더욱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이 일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힘써 행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 신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5월 9일(목)

민17,18

시55

사7

약1

야고보서 1장 / 시험과 경건

개요

1-18 시험에 대하여

19-27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잠언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주제별로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시험은 인내하는 신자를 만들어 줍니다(2-4절).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5-8절). 하나님은 신자들을 세우시고 높이실 것입니다(9-12절).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며 욕심에 끌려 생기는 문제입니다(13-18절).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시험조차도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12절).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19-25절).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키며, 연약한 자들을 돕습니다(26,27절).

참된 경건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건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을 돌려 보살펴야 할 대상은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 하여 물질적인 유익 등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5월 10일(금)

민19

시56,57

사8-9:7

약2

야고보서 2장 / 차별과 행함

개요

1-13 차별에 대하여

14-26 행함에 대하여

신자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1-4절).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주목하십니다(5-7절). 차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8-13절). 한편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14-17절).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됩니다(18-26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17,26절).

신자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사고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행하는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행함은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이며, 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을 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삶에서 믿음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3장 / 혀와 지혜**개요**

1-12 혀에 대하여

13-18 지혜에 대하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혀를 다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1,2절). 그것은 온 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3절).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4절). 작지만 큰 힘을 냅니다(5,6절). 그러나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7,8절). 하나의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9-12절). 한편 참된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13절). 세상 지혜는 선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14-16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선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17,18절).

신자에게 혀를 다스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며, 경건의 실행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신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입니다. 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함입니다. 또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혀를 죄에 내어주면 독한 저주를 내뿜는 무기로 변합니다. 그런 혀를 달고 다스리지 않고 사는 신자는 온 몸에 가시를 달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모습은 전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혀를 다스리는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혀를 다스림은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제어하길 원합니다. 찬송과 사랑을 말하는 혀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되게 하옵소서.

5월 12일(주일)

민21

시60,61

사10:5-34

약4

야고보서 4장 / 세상과 마귀

개요

- 1-6 세상에 대하여
- 7-10 마귀에 대하여
- 11-12 이웃에 대하여
- 13-17 내일에 대하여

세상은 욕심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욕심의 결과입니다(1절). 욕심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2,3절).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4-6절).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7-10절). 형제와 이웃을 향한 판단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11,12절).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13-17절).

신자는 세상 권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격과 모습을 잘 살펴 죄를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싸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일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생존이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과 판단과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작고 강한 교회(4)

Part 1. 작은 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Part 2.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다

Part 3. 작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Part 4. 작고 위대한 교회가 되다

*칼 베이터스의 '작고 강한 교회'를 토대로 다시 쓴 글입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트럭보다 자전거를 다루는 것이 더 손쉬운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리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교리는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건강한 변화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변화는 건강한 것입니다.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삶의 변화, 죽음과 부활, 구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전하는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탄생과 죽음, 결혼과 세례를 비롯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역의 시작이나 중단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원리

변화를 위한 사역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 시작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1. 열정

열정 있는 사람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2. 목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라.

3. 협력자

지도자 혼자서 사역을 이끌면 사역은 좌초되고, 지도자 자신은 심신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함께 사역을 이끌 협력자가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

4. 계획

계획을 위한 유용한 질문들이 있다. (1)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2)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사역의 성공여부와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 기도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나중에 생각나서 불현듯 덧붙여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하나님, 목회자, 교인들이라는 세 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이 세 참여자의 온전한 협력 없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패와 고통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부분을 알고, 또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2.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3.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은 없으며, 과정에는 늘 시행착오가 따른다. 그러므로 뜻을 세웠다면 한 번 해보자.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함께 기도하기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각자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